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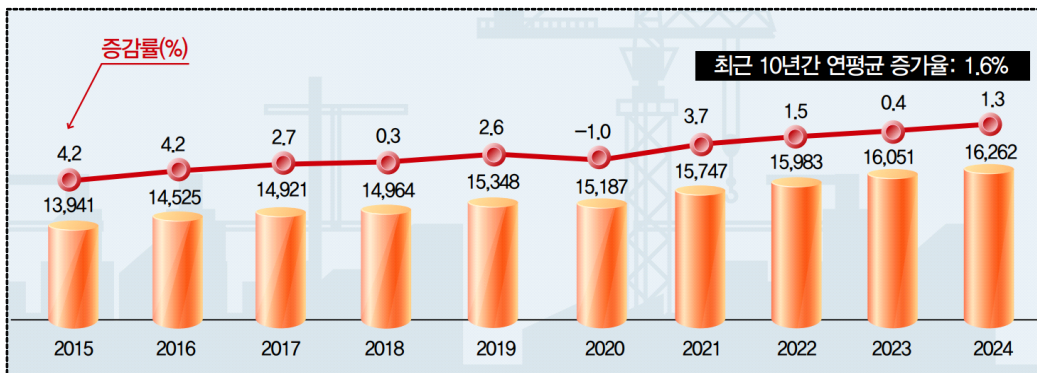
2024년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하루 평균 16,262대... 승용차 비중 지속 증가

국토교통부, 2025. 5. 1.(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를 5월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16,262대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이동거리를 환산하면 지구 둘레의 약 1만 3천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균 일교통량 최근 10년간 추이



고속국도 교통량 증가, 일반국도 소폭 감소

도로종류별로 보면, 고속국도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53,392대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지방도는 5,934대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반면, 일반국도는 13,136대로 전년 대비 0.3% 감소해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였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흐름

차량종류별로는 승용차가 하루 평균 교통량 11,906대(전체의 73.2%)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 4,053대(24.9%), 버스는 303대(1.9%)로 나타났다. 또한, 버스와 화물차는 전년 대비 2.3%, 0.2% 감소한 반면, 승용차 비중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중심의 이동 패턴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 교통량

교통량은 주간(7시~19시)에 평균 일 교통량의 76.4%가 이동하며,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16~17시,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평균 일교통량

구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평균
고속국도	56,702	56,116	54,569	54,029	55,341	63,249	62,821	57,534
비율(%)	98.6	97.5	94.8	93.9	96.2	109.9	109.2	100.0
일반국도	12,290	13,647	13,653	13,482	13,731	14,778	14,136	13,674
비율(%)	89.9	99.8	99.8	98.6	100.4	108.1	103.4	100.0

도로종류별 혼잡구간

고속국도 중 가장 많은 차량이 통과한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선인 경기 하남시의 하남 분기점(JCT)에서 남양주시 퇴계원 나들목(IC, 13.6km)으로 조사되었으며, 일 평균 222,540대의 교통량이 통과하였다.

일반국도는 자유로에 위치한 77호선 서울시계~고양시 장항 나들목(IC)구간(191,565대, 19.5km)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었다. 지방도는 화성과 수원을 연결하는 309호선 화성시 천천 나들목(IC)~서수원 나들목(IC) 구간(127,525대, 5.6km)이며, 인근 산업단지 등에서 차량 유입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교통량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하루 평균 교통량 40,677대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반면, 강원도는 가장 낮은 8,292대(전년 대비 1.3% 감소)로 조사되었다.

충청북도는 평균 일교통량 이 14,128대에서 14,539대로 증가하며 증가율 2.9%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4.3% 감소(11,649→11,147)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지역별 평균 일교통량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국	16,051	16,262	1.3
경기도	40,013	40,677	1.7
강원도	8,405	8,292	-1.3
충청북도	14,128	14,539	2.9
충청남도	18,074	18,351	1.5
전라북도	9,466	9,450	-0.2
전라남도	9,023	9,022	0.0
경상북도	11,995	12,269	2.3
경상남도	14,835	14,764	-0.5
제주도	11,649	11,147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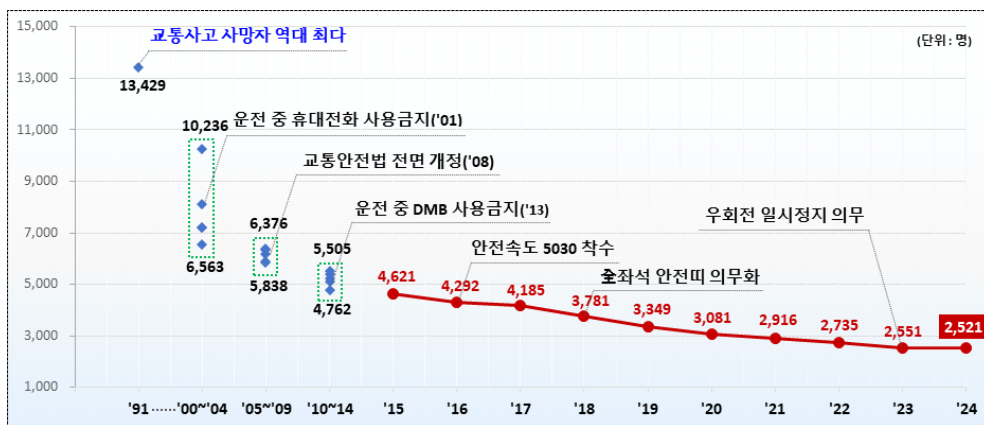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보행자 보호와 위험운전 근절 중심 정책 강화

국토교통부, 2025. 5. 15.(목)

정부는 지난 5월 15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전국 17개 시·도 및 교통안전 관계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2024년 기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2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920명)는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고령 보행자가 그 중 67%(616명)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의 사고 취약성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대 분야에 걸쳐 사망자 감축 전략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1991~2024)



보행자 안전 강화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1천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또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를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9개소) 한다.

위험운전 대응 강화

음주·약물 상태 운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도로교통법 시행, '25.6.4).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징역 1~5년 ↓, 벌금 5백만원~2천만원 ↓), 재범시 가중(징역 1~6년 ↓, 5백만원~3천만원 ↓)

또한,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년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1,100대)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KNCAP) 충돌실험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

이륜차를 대상으로도 안전운전을 도모한다.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25.4.28 시행, 4.28~7.27 계도기간 운영)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생활물류법 개정 추진, '25.下)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치사율(사고 100건 당 사망자): 이륜차 2.4명 > 승용차 0.9명('24년 기준)

** 사용검사(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 시), 정기검사(최초 3년 후 2년마다), 튜닝검사(튜닝승인 받은 이륜차), 임시검사(정비명령 등 받은 이륜차)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화물자동차법 개정 예정, '25.12)한다.

* 65~69세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수검 의무

이와 함께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고속도로TG, 휴게소 등)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8.3m vs. 승용차 4.2m)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300대)을 실시한다.

도로환경 개선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여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 5개노선, '25).

* (관심) 강우구역 4℃ 초과, (주의) 어는비 주의, 강우구역 0℃ 초과 ~ 4℃ 이하, (위험) 어는 비 위험, 강우구역 0℃ 이하, 눈/눈비 영역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휴게소 5, 졸음쉼터 10, 화물차 라운지 5)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한다.

* 사고찾은 곳 개선(국도 50곳), 위험도로 개선(국도 124곳)

** 대학 도로 설치·관리자(학교장)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의무 유(교통안전법 시행, '24.8)

교통안전 인식 제고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띠 매기'('18년 이후 전좌석 의무화) 확산을 위해 플랜카드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메시지("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하여 음원 등 다양한매체를 통해 6대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6대 안전수칙 및 홍보 메시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인 만큼,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로 서비스,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2025 국토교통 통합형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경연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토교통데이터진흥협회, 2025. 5. 28.(수)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국토교통데이터진흥협회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토교통 통합형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 「2025 국토교통 통합형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연 개요

이번 경연은 국토교통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기획 역량을 발굴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모델을 통해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정책·사업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개최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접수는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받는다.

특히, 참가자 대상 수요조사와 1차 심사, 서비스 기획안 구체화, 2차 심사, 최종발표 및 시상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할 계획이다.

경연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은 주관·후원기관 기관장상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국토교통부 협력형 분석과제 후보로 등록되어 공모사업과 연계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가 대상은 국토교통 데이터 기반 국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이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유형별 데이터 통합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융합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다.

주요 일정

